근대 교과용도서의 역사적 변천과정

이종국 지음 「한국의 교과서」

'한 나라의 경전'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교과서는 사회문화 창달의 公器的 도구로서 정선된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인 동시에, 바람직한 인간상 형성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당대인의 합의된 이상을 담고 있다.

교과서는 그 나라의 미래와 그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을 위해, 축적된 역사적 경험과 가치관을 터득케 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가치있다고 평가되는 제반 기초지식의 국민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 李鍾國씨가 최근 상재한 「한국의 교과서」(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그같은 교과서의 위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새롭게 다져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근대 교과용도서 성립 및 변천과정을 상세히 규명해주고 있어 독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끈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 이 책의 첫머리에 놓인 「교과서관과 교과서연구」는 일종의 총론. 표준매체와 제도매체로서의 교과서관을 외국의 예를 곁들여 해설한 다음 그에 따른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교과서연구 동향을 상술하고 있는데, 특히 교과서 연구에 관련된 기왕의 논저들이 세밀하게 정리돼 있어 큰 도움을 준다.

다루어진 양으로나 논의의 깊이에 있어 이 책의 중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근대 교과용도서 성립과정」에서는 개화기부터 1910년까지의 교과용도서 출판과정을 본격적으로 천착하고 있다. 저자 이종국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근대적 교과용도서는 "19세기 후반의 미명 속에서 서구사조를 이식하는 신교육교재"로 출발, "민족 개명을 위한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출판매체"로 성립하는데, 서구사조 수용 이전의 전통교과서가 '東道'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인 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1894년 발족한 학무아문과 그것을 개편한 학부에 의해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는 것을 전후해 근대적 교과서가 비로소 출현하면서 나름의 발전과정을 밟는다. 저자는 그 발전과정을 1905년을 기점으로 구한말의 학부와 일제에 의한 교과용 도서출판의 두 단계로 나누어 규명하는 한편, 최초의 근대적 학교인 元山學舍의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의 실태 규명에 따로 한 장을 할애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교과서의 시원적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근대 교과용도서 성립과정」에 이어 실린 「교과용도서 체재의 변천」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및 외형의 체재와 관련해 ①문제의 제기나 단원 구성과 같은 내용에 관한 사항 ②활자·자간·행간·여백·판면율·지질·인쇄효과 등에 관한 사항 ③편차나 삽화와 같은 조직체계에 관한 사항 ④표지·면지·속표지·제본·판형 등 장정에 관한 사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돼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반독자들이 보기에는 다소 전문적이다 싶은 부분도 적지 않지만 객관적 수치나 도표 등의 실증자료가 풍부하게 동원돼 저자의 꼼꼼한 노력이 돋보인다.

「교과용도서의 편찬 발행」은 앞의 논문들이 일종의 사적 고찰을 담고 있는데 반해, 교과서 출판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 학습현장에서의 교수 및 학습용 도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타의 일반도서와 구분될 수밖에 없는 편찬과 발행과정을 실무와 이론의 양면을 균형있게 거론,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1907년 발행된 보통학교학도용 「수신서 권1」의 삽화.

'교과서평설'이란 소제목 아래 한데 묶은 두편의 논문 「교과서에 묘사된 한국인상」「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인상」은 교과서의 가장 큰 편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람직한 인간상 구현'이란 점과 관련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지는데, 특히 그나마 주권이 남아있던 대한제국기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인상과 식민지시대 교과서에 표출된 그것과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부록으로는 1945년부터 올3월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 관계 연구논저를 총류, 교과서史論, 교육과정 및 교과서론, 교과서개발론, 교과서출판 및 편집론, 교수-학습론, 교과서교육 이념론, 교과서제도 및 정책론, 교과서 국제비교론 등의 항목 아래 모두 50여면에 걸쳐 정리해주고 있다.

종합출판시스템
Total Publishing System

이 예민한 感覺과 세련된 技術은
컴피아트 정신의 표현입니다

축적된 지식과 창의력이 만나는 곳
십여년의 오랜 경험과 전문가적 기질을
바탕으로 전자조판의 入·出力에서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감각의 차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조판 SYSTEM
- 입력기 15대
  국·한·구문 혼용 출력기 1대, 구문 전용 출력기 1대
- 교과서, 참고서, 어학교재(러시아어 포함), 사전, 단행본

편 집 DESIGN
- Text 디자인, 레이아웃, 화상 텍스트시스템
- 표지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컴피아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
FAX : 739-9356